



08-08 (통권 186호)  
2008.02.29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美 대선 앞두고 보호주의 확산 조짐
-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 감소

## 경영 노트

- 모토로라의 추락이 주는 교훈

## 사회 트렌드

- 매스 콜라보레이션(Mass Collaboration, 집단협동)

## 저널 브리프

- 인플레이 압력에 고민 중인 중국

## 洗心錄

- 무재칠시(無財七施)

## □ 美 대선 앞두고 보호주의 확산 조짐

- 21일 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그룹과 미국 베인캐피털의 美 통신장비업체 스리콤 인수안을 불허하여 보호주의 논란을 다시 촉발시킴
  - 인수안 불허 결정은 스리콤이 국방부에 보안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므로 안보 관련 기술과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란 우려에 근거함
  - 이에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미국 투자를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중국개발은행(CDB)도 씨티그룹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 미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를 지속적으로 불허함에 따라, 당분간 미중 무역 마찰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긴장이 조성되면 글로벌 경제 침체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음

## □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 감소

-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법인세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개별 법인들의 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전체 법인 수 자체가 증가하고 소득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개별 법인의 세 부담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증가함
  -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1997년 25.10%에서 2002년 23.09%로 하락하였으나, 전체 법인세수에서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3%에서 2002년 64%로 1.9배 증가함
  -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 법인세수 비중이 23%로 소득세 비중 19%를 대폭 상회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모토로라의 추락이 주는 교훈\*

- (개요) 모토로라는 한때 휴대전화의 원조로서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 실적 악화와 함께 휴대전화 부문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973년 휴대전화 사업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이후 ‘스타텍’, ‘레이저 폰’ 등 히트 상품을 출시하면서 노키아와 함께 휴대전화 시장을 선도
  - 그러나, 2007년 이후 신흥 시장에서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사업 적자가 심화됨
  
- (추락의 원인) 모토로라의 사업 매각 추진의 배경은, ‘성공신화 안주’, ‘소비자 니즈 반영 미흡’, ‘M&A 시너지 효과 창출 실패’, ‘위기 감지능력 부족’ 등의 4가지 원인이 작용
  - (성공신화에 안주) 2005년 ‘레이저 폰’의 대성공으로 삼성과 LG 등 신흥 후발업체의 강한 추격을 뿌리쳤지만 성공 신화에 너무 안주했었음
  - (소비 트렌드 창출 미흡)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출시가 이뤄지지 못함
  - (M&A 시너지 창출 실패) 2006년 모바일OS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체제 표준화를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흡
  - (위기 감지능력 부족)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적자, 샌드위치 시장 상황, 내부 불협화음 등 위기가 있었으나 안이한 대처로 일관함
  
- (시사점) ‘잘 나가던’ 회사도 ‘아차’하는 순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혁신 노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소비자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일류 상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사업 확장 시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인수합병의 시너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돌발적, 우발적 위기 징조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대응 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조선일보(2008.02.07) 기사를 요약 정리

□ **매스 콜라보레이션(Mass Collaboration, 집단협동)\***

- 인터넷의 전 세계적인 보급과 발전으로 익명의 다수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매스 콜라보레이션’이 21세기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음
  - ‘매스 콜라보레이션’이란 익명의 다수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작업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
- 협동은 인류가 집단으로 생활하면서부터 늘 존재해왔지만, 인터넷은 수만 년 동안 이루어진 협동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집단협동을 만들어냄
  - 대표적인 예가 2001년 개설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인데, 아주 훌륭한 백과사전이 익명의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 즉 집단 지성에 의해 만들어짐(2007년 말 현재,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등록한 저자 638만 7,732명이 221만 개 이상의 항목을 집필)
  -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는 수많은 익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해 100억 달러 가치가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어냄
- 기업이 기업 밖 익명의 다수의 도움으로 가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집단 소싱’(crowd-sourcing)이라는 개념도 등장
  - NASA는 화성의 지형에 이름 붙이는 작업을 집단 소싱했고, 그 결과 화성의 분화구와 평야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이름을 갖게 됨
  -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인터넷 사이트는 짬 생길 때마다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씩을 읽어 주는 수많은 봉사자에 의해서 매일같이 오디오북을 생산해 내고 있음
- 물론 콜라보레이션 현상의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음
  -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배리 웰만(Barry Wellman) 토론토大 교수는 ‘집단 지능’이 ‘집단 광기’로 변할 수도 있음을 언급
  - 즉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을 해치기 위해 집단적으로 협동할 수도 있어 집단적 광기를 부리기도 함
  -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단지 가능성의 공간임

\* 조선일보(2008.2.25일자), “새로운 문명이 온다- 매스 콜라보레이션” 내용을 요약

□ 인플레이 압력에 고민 중인 중국\*

- (현상) 2007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고공 행진을 시작하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2008년 1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보다 7.1% 상승해 지난 11월에 기록한 6.9%(과거 11년간 최고치)를 경신
- (원인) 중국 소비자물가 급등의 원인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의 영향) 중국의 2008년 1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8.2% 급등하였는데 이는 곡물, 식용유, 돼지고기 가격이 각각 5.7%, 37.1%, 58.8% 상승함
  - (시중 유동성 증가) 중국의 2008년 1월 총통화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9%p 상승하였으며, 신규 대출 금액 또한 8,036억 위안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
  - (비시장경제적인 물가 안정책) 최근 전력 요금을 동결한 결과 화력발전소들의 채산성 악화로 전력 생산이 감소하는 등 물가 상승에 의한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자 실시한 생필품 가격 동결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
- (전망) 금리인상, 긴축조절, 위안화 절상 등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부작용 또한 우려되어 중국 정책 당국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07년 이미 6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으나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실업, 빈부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경험. 더욱이 향후 중국 당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내외 금리 격차의 확대에 인한 국제자금 유입으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금리인상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에 최근 긴축 정책 속도 조절 논쟁이 일고 있으나, 긴축 정책의 속도 조절은 과열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위안화 절상은 원자재나 상품 수입 가격을 하락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이 글은 『한경Business』(2008.03.0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무재칠시(無財七施)

불경의 잡보장경(雜寶藏經)에는 무재칠시(無財七施)란 구절이 나온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란 뜻이다.

어떤 이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도대체 무얼 준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 재물이 없더라도 베풀(施)수 있는 일곱 가지는 있는 것이다.”

**첫째, 화안시(和顏施).**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것이다. 얼굴에 환하고 기쁨 가득찬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그 자체로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보시이다. 웃는 낯빛과 부드러운 얼굴은 최상의 존중이요 대화법이다. 얼굴빛이 좋으면 만사가 형통하기 마련이다.

**둘째, 언사시(言辭施).**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충만한 행복감을 전한다. 말씨 곧 말 씩씩이가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게 한다. 품(品) 자는 입 구(口)자가 세 개다. 결국 입에서 품격이 나온다는 뜻이다.

**셋째, 심시(心施).**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비심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보시행으로 우리가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중한 보시이다. 마음가짐을 좋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늘 안정시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안시(眼施). 호의를 담아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한 보시(布施)가 된다. 예로부터 수양의 첫걸음은 눈빛을 바로 하는 것이었다. 주위사람을 대할 때 좋은 눈빛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교감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시(身施).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 준다거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돕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 할 줄 알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 준다

여섯째, 상좌시(床座施).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말한다. 지치고 힘든 이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소중한 보시행(布施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큰 도량을 가지고 숙적 같은 동료일지라도 그가 앉을 자리를 내 주라는 것이다. 좋은 경쟁자가 결국 나를 키우기도 한다.

일곱째, 찰시(察施) 또는 방사시(房舍施).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다.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찰시이다. 다른 사람에게 쉴 공간을 내주는 만큼 나의 존재 영역 역시 넓어진다.

부란 거름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뿌러지게 되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 톨스토이(1828~1910) : 러시아의 대문호